

항기로운 예들

☞ 심입조형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요한 이필래 김두산 문수경 강은미 김규찬 김기안/하세린 김기택/배숙자 김명중/이종문 김병욱/이영숙 김외자 김우근/윤지성 김윤주 김경자 김정환/임영미 김중식/박영숙 김준규/이소은 김준화 김현욱 박부용/최귀남 박종삼 박희재 박석태/차옥자 서진화/최봉순 석에자 오영순 오택현 윤 속 윤병화/양영욱 윤승환/민욱희 윤영준/박진숙 이육남 이찬호 이태일 이한철 이만수 정영주 정영구/이인숙 정기성/심순옥 정복순 장유복 장복순 장윤주/김현진 전병규/이인숙 정기성/심순옥 정복순 지옥분 재만기/김은주 채희춘/황영욱 최정희 주재호 현윤진/황선영 황성연/홍금옥 / 51명

☞ 선교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이필래 김두산 문수경 김규찬/최효자 김기안 김민형 김명중/이종문 김병욱/이영숙 김외자 김경자 김준화 김현욱 박권재/송영숙 박종삼/이명연 박복순 박석태/차옥자 배경원 안금자 윤 속 윤병화/양영욱 이경자 이찬호 이태일 이한철 이만수 정영주 정영구/이인숙 정기성/심순옥 채희춘/황영욱 최귀남/정계숙 최봉순 최성삼/이미향 최정희 현윤진/이영욱 홍유경 / 37명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래 김병욱/이영숙 김경연B 김현구/서재희 박복래 박부용/최귀남 박순자 박종삼/이명연 박복순 영영분 오영순 윤조훈 이강우 이미지 이인숙 이춘휘 전병규/이인숙 채영연 채희춘/황영욱 최선미 최성현/윤경자 / 22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김요한 김영숙 김민석 김수현 김윤주 김경중 김준주 김준현 김지은 김정숙 김준화 김혜란 민욱희 박순자 박정숙 박혜진 박희영 배명찬 박진숙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욱 이경자 이기자 이설아 이소은 이육남 이인숙 임승주 장하람 전영구 정복순 정희자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욱 김민희 무 영 양일석 이노를 평순현 / 44명

☞ 월정헌금
 박순자 이영숙B 전진희 홍유경 / 4명

주간 성경연구

05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고린도전서 14장 13절 ~ 25절
월요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 ~ 40절 목요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 34절
화요일	고린도전서 15장 1절 ~ 11절 금요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 49절
수요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 19절 토요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 58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욱 최귀남 배경원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희 박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전도사	이필래 김요한	
	준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승이 문수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 루아 : 김한나 시은 · 에덴 : 최원지	혼산나 : 김안나 엔젤 : 이난수
	박수자	오르간	심해운
		피아노	김민지 강민주 김미희 김성경 공희라
		클라리넷 플룻	박진숙 이난수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경숙 수리남 : 안석필 이성욱 미코 : 김다니엘 미코 : 최희희	이집트 : 김진숙 A X 파 : 김혜일 A X 파 : 이분숙 A X 파 : 박동권 김명화 오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용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동포서교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8. 01. 28. 주일 예배 설교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시편 42편 1~11절

설교자 이진우 목사

인생의 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길이 없어 보이는 벼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벼랑 끝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보야 합니까?

1.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세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 산으로 올라간 후 한동안 그 모습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보며 달려야 아브라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 습관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질의 우상, 권세의 우상, 사람의 우상 등 우리는 어려움 속에 눈에 보이는 탈출구를 향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생의 그 심한 고난 가운데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는 조종과 비난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벼랑 끝 인생의 길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가 합니다. 시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아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까.”**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으로 좌절하지 말고 간절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인은 연약해진 자신을 향해 명령하며 스스로 더욱 굳게 다짐합니다. **본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11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고백하며 그 마음을 다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 해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나오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보야 합니까?

2.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누구나 벼랑 끝에 서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면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본문 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벼랑 끝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막다른 인생, 막장 같은 인생, 벼랑 끝에서 절망과 포기만이 남았다고 느낄 때, 성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켰는가?”**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송하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는 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그 때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벼랑 끝에 서있는 그 때라도 우리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생명을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으며, 참된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으며,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의 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산 소망을 주사 또 세상을 견디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4 - 05

2018. 02. 04.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남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